

---

## 테크플러스(tech+) 제주 2025 추진계획(안)

- 2025년 테크플러스 제주 개최지원사업 -

---

2025. 8.

# 테크플러스(tech+) 제주 2025 추진계획(안)

2013년부터 시작된 테크플러스 제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찰력을 제공하고 제주 미래를 연계한 발전가능성을 모색하는 신개념 지식융합 토크콘서트로, 올해는 국제정세 변화 속 새롭게 주목받는 '북극항로'를 주제로 제주의 전략적 가치와 미래 해상 실크로드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I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13조(과학기술진흥사업) ①, ②, ③항 및 각호

## II 추진목적

- 테크(T.E.C.H.)는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문화(culture), 인간(human) 4개 테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기술과 창의력을 접목한 지식산업을 공유하고 창의·융합 문화와 패러다임의 확산
- 기술과 인문간 교류 촉진 및 제주 미래발전을 위한 통찰력 제공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합과 대안을 통한 제주형 미래 산업의 마중물 역할

## III 행사개요

- 행사명: 제13회 테크플러스(TECH+) 제주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재)제주테크노파크 및 협력기관
- 일시장소: 2025. 08. 22.(금) 15:00 / 한라대학교 컨벤션홀 (A)
- 주제: '북극항로', 제주의 해상왕국 실크로드가 부활하다
- 프로그램: 전문가 3인 개별 주제강연 및 연사 합동 토크콘서트
- 시청방식: 현장 대면 및 온라인(제주의소리TV, www.jejusori.net) 생중계
- 참석대상: (현장)산학연, 도민, 학생 등 300여 명 / (생방송 시청)5,500명(2024 기준)

- 제주는 오랜 해양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옛 탐라는 ‘별의 나라’로 불립니다.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숭배하며 항해문화가 발달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산둥, 양쯔강, 광저우부터 일본, 동남아, 그리고 그 너머 스리랑카까지 연결된 바닷길을 통해 실크로드를 개척하며, 동북아 해상무역의 중계지 역할을 해온 곳이 제주입니다.
- 지금 북극항로 개척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지구 온난화 위기의 역설입니다. 올해 관측된 북극 해빙(海氷)의 면적은 1433만 $km^2$ 로 최저 수준입니다. 2035년까지 북극 빙하가 사실상 사라진 미래에 대한 예측도 나옵니다.
- 이와 함께 북극항로가 미래의 새로운 실크로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기업들의 부산 이전을 서두르는 이유도 북극항로는 대한민국 경제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북극항로의 경제적 이점은 분명합니다. 늘 안전을 위협받고 과부하되고 있는 수에즈와 파나마 운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류비와 시간도 약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객관적 지표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제주는 유럽과 동아시아, 북미가 연결되는 핵심 위치에 있으며, 우리나라 대륙권의 역할과 완충작용을 하면서 싱가포르, 몰타, 바하마처럼 해양 물류와 관광을 연계한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부산이 한반도 전진기지라면 제주는 지리적으로 북극항로의 기점으로 새로운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신 해양 실크로드 개척의 활시위는 힘껏 당겨진 상태입니다. 차근차근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주는 2035년까지 3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제주신항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제주와 칭다오 항로를 개척하며 국제 해운 네트워크의 첫걸음도 뒀습니다. 제주해군기지에서 출발한 왕건함은 알래스카까지 항해하면서 우리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북극항로를 개척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 북극항로의 개척은 탐라 해상왕국의 현대적 부활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무역장벽, 기술 경쟁 속에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가발전전략과 연결하는 동시에 중앙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제주의 독자적 해양전략과 특별한 섬의 가치를 새롭게 이어나가기 위하여, 테크플러스 제주 2025는 〈‘북극항로’, 제주의 해상왕국 실크로드가 부활하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 □ 프로그램 일정표

시간	행사 세부	연사
14:00~14:40	40' 등록 및 관객 입장	
14:40~14:55	15' 좌석 정돈 및 행사안내	
14:55~15:00	5' 주제영상 상영	
15:00~15:05	5' 오프닝 메시지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 이연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5:05~16:35	(강연1) 정책 <sup>+</sup>	김기태 북극물류연구소 연구위원
	(강연2) 인문 <sup>+</sup>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강연3) 산업 <sup>+</sup>	정귀일 한국무역협회 지속성장지원실 실장
16:35~16:40	5' 무대정돈	
16:40~17:05	25' 토크 콘서트	진행자, 연사 3인
17:05~17:15	10' 특별 인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7:15~17:30	15' 설문 및 정리	

## □ 강연 주요내용

▶ 정책<sup>+</sup>: 북극항로 시대, 제주도는 무엇을 할 수 있나?

## 김기태 북극물류연구소 연구위원

북극(해)항로는 러시아와 캐나다가 지나가는 선박을 통제한다. 필요한 경우 쇄빙선의 에스코트를 받아야 하고 극한환경에 대비하는 안전 장비가 배에 실려 있어야 한다. 환경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료도 친환경 연료를 써야 한다. 중국도 북극항로로 많은 선박을 보내고 있다. 중국 선박이 북극항로를 주도적으로 항해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비싼 운임을 주면서 화물 운송을 의뢰해야 할지도 모른다. 북극항로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

▶ 인문<sup>+</sup>: 기후 위기 시대, 북극항로는 새로운 기회

##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근 국제사회는 북극의 환경을 고려한 개발과 활용, 그리고 이에 관련된 기술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각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원주민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구성원들은 규범과 기준을 다듬어 적용하고, 되도록 자연적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적용하자는 청색경제(Blue economy) 개념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고, 극지활동진흥법 등을 기반으로 북극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청색경제 및 청색기술(Blue Technology)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국제사회의 요구와 경제적 번영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 산업<sup>+</sup>: 북극항로와 제주의 미래

## 정귀일 한국무역협회 지속성장지원실 실장

기후변화로 항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북극항로는 기존의 수에즈운하 루트를 대체할 수 있는 전략적 해상 통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동북아 해상 네트워크의 교차점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중국과의 해상 연계성, 부산과의 보완적 항만 관계를 활용해 새로운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에 '다극해상루트' 개념을 중심으로, 제주가 북극항로를 활용한 국제 환적, 중국계 화주 유치, 친환경 스마트 물류허브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다.

## VI

### 연사 소개



▶ 성명: 김기태 북극물류연구소 연구위원

▶ 이력: (현)북극물류연구소 연구위원  
(전)영산대학교 해운항만경영학과 교수, 포스코 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5) 과학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토론회 기조강연

▶ 주제: 북극항로 시대, 제주도는 무엇을 할 수 있나?



▶ 성명: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이력: (현)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한국유럽학회 회장  
(전)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장, 장모네 EU센터 소장  
(‘24) KBS 이슈PICK ‘북극, 뜨거운 패권 경쟁’ 강연 [방송보기](#)

▶ 주제: 기후 위기 시대, 북극항로는 새로운 기회



▶ 성명: 정귀일 한국무역협회 지속성장지원실 실장

▶ 이력: (현)한국무역협회 지속성장지원실 실장  
(전)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장,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  
유럽의회 정책보좌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원

▶ 주제: 북극항로와 제주의 미래



▶ 성명: 유서영 소풍벤처스 디렉터

▶ 이력: 소풍벤처스 기후네트워크 TF 팀장, 제주청년네트워크 비상임대표

▶ 역할: 토크콘서트 진행

## VII

### 향후계획

- 참가자 모객을 위한 유관기관, 대학, 고등학교 등 홍보 협조 문서 발송
- 행사 전일, 연사 대기실 및 행사장 영상·음향 송출 최종 점검 리허설 진행
- 행사 당일, 제주의소리 홈페이지(www.jejusori.net) 실시간 라이브 송출 등